차별 없는 별

차별하면 안 돼요!

랄랄라

가수하려면 예뻐야 해요?

"착한 몸매"

"뚱땡이" "난쟁이"

"대두" "못난이"

"찌질이" "곰보"

- 키, 얼굴 단지 외모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?
-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경험이 있나요? 놀림 당한 적이 있나요?
- 다른 사람의 외모를 놀리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? 사용해서 될까요?

사랑이

“한국에 인종차별이 없다구요?”

사랑이가 버스에서 본 이야기는
인도에서 온 **보노짓 후세인** 교수 이야기

“이 더러운 놈아”

“아랍 사람이야?”

“불쌍한 사람”

“힘들게 사는 사람”

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경험한 인종차별 이야기

- 외국인을 피부색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하거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.
- “아랍 사람이야?” “아프리카 사람이야?” 정확한 국적은 외모만으로 알 수 없어요.
- 다짜고짜 반말하고, 욕하지 마세요.
- 한국 보다 경제개발 수준이 느린 나라에서 왔다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.
- 외국인은 범죄자? 무서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.

사랑이

살색이 아니라 살구색이에요

"모두 살색입니다"

- 인종차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?

쿵쿵이

'살구색'을 만든 주인공은 어린이!

"어려운 한자어는
어린이 차별"

쿵쿵이

“어린이는 딴 데 가서 놀아”

“어린이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를 결정할 때

어린이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,
어른들은 어린이의 의견에
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”

유엔 아동권리협약 12조

- 나이로 차별받은 경험을 이야기해 봐요.
- 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적이 있나요?

명랑이

장애인도 버스 좀 탑시다!

- 사진은 어떤 상황일까요?
- 장애인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?
- 우리 주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을 찾아봐요.

명랑이

욕을 쓰는 것도 약자에 대한 차별!

“절름발이”

“합죽이”

“병신”

“정신병자”

“장애자”

“무뇌아”

“불구자”

“저능아”

“애꾸눈”

“벙어리”

“난쟁이”

-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언어는 무엇이 있을까요?
- ‘욕’을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?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봐요.

당당이

똑같이 대한다고 평등한 걸까요?

- 남녀 화장실 크기가 똑같은데 사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-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평등일까요?
- 우리학교와 마을의 공공화장실은 어떤지 조사해 보세요.

당당이

여자는 치마, 남자는 바지!

교복, 유니폼 등 치마만 입게 하는 것은 여성 차별

- '남자'다움, '여자'다움은 무엇일까요? 이것은 올바른가요?
- 성별 때문에 차별을 당했거나, 차별해본 경험이 있나요?

땡땡이

성적이 전부는 아니에요

- 나는 성적 때문에 억울한 적이 없었나요?
- 내가 가장 잘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.

나는 다름을 존중하고

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